



전국에 출몰했던 '문화' 파수꾼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풀어낸 주강현씨

경희대에서 '두레'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까닭은 '운동권'에 몸담았던 탓에 안팎의 견제가 심했던 때문. '부르주아적'이라는 운동권 내부의 비판에 맞서, 87년에는 구로공단에서 '하방'을 치르기도 했다.

“서양적인 것, 대중적인 것과의 타협입니다. 틀만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의 내용을 담자는 주장은 '동도서기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기술과 사상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동도서도' '동기서기'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강현씨의 지론인 '깡통식혜론'에 대한 설명이다. 기회가 닿는 대로 “민을 게 똥밖에 없다”는 똥을 통한 부국강병론도 개진할 생각이다.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는 독자의 폭이 고른 책이다. 그런 가운데 젊은이와 여성 독자가 많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에서 관심이 높다. 10개의 주제로 우리 문화의 철학적 바탕을 짚어볼 요량이고, 1년에 두권 정도의 '정갈한' 연구서를 펴낼 계획이다. 연구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 8년 가까이 운영해온 개인연구소 '민족문화유산연구소'도 잠시 접어두었다. — 최성일 기자

올 한해 주강현씨(41, 역사민속학자)는 전국 각지에 '출몰'이 잦았다. 28개 지역을 돌며 1백여회의 강연회를 가졌다. 비행기 탑승 횟수만도 34회에 달한다. 원래 바쁜 몸이지만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한겨레신문 출판부)가 나온 이후 더욱 바빠졌다. 6월 출간된 이 책은 지금까지 10만부가 나갔다. 올해가 저물기 전에 2권을 펴낼 계획이다.

“가장 전문적인 사람이 가장 대중적인 책을 쓰는 일은 시대의 요청입니다. 우리 글쓰기의 전범은 문화쓰기, 곧 평범한 것과 일상적인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빈 해리스 류의 책들이 문화인류학을 출판장르로 정착시킨 공로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것에 관심이 모일 것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2권에서는 마빈 해리스의 주장에 일격을 가한다.

83년 석사학위를 받고, 11년만에 모교인



통합교수법 제시한 영어 학습서

《영어의 바다에 ...》 펴낸 하강호씨

두차례의 영어 강의 워크숍과 한국의 영어교육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절감하게 된 것이 이 책의 저술동기. 하교수는 이 책들이 자신에게 쏟아지던 영어공부 비법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일종의 해답이기도 하다고 밝힌다.

제목이 된 '영어의 바다'라는 표현은 워크숍에서 처음 사용한 말인데, 새로운 언어환경에 푹 빠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외국어 습득은 힘들다는 신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먼저 나온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는 하교수의 자전적 이야기고 《영어의 바다에 헤엄쳐라》는 보다 본격적인 학습서다. 하교수는 이런 형식의 학습서인 '영어의 바다' 시리즈를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던 젊은 시절, 영어회화-모임에서 만난 부인과 2남 2녀의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서 살며 책 읽고 글쓰는 일이 유일한 취미라고 밝히는 하교수는 지금도 일주일에 평균 5통 이상씩 오는 한국 독자 들의 편지가 반갑다. “조그만 힘이라도 한국의 영어교육 발전에 보태고 싶습니다.”

— 박남정 기자

하광호 교수(64, 뉴욕 주립대)는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대학의 영어교육과 학생들에게 영어교수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말하기·읽기·작문을 통합시켜 교육하는 그의 교수법은 문법따로, 읽기 따로식의 분리교육인 우리 영어교육 실정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교수가 펴낸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 《영어의 바다에 헤엄쳐라》(에디터)에 쏠린 독자들의 관심은 이를 잘 반영한다. 출판사의 집계로는 지난해 12월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 초판이 나온 이후 두권을 합해 약 30만권이 팔렸다고.

“95년 오랜만에 귀국을 했는데 몇군데 언론사에서 청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로 나의 영어공부비법에 관심이 쏠리더군요. 한국의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강의 워크숍도 갑작스레 요청받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나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펴낸 이주향씨

이주향 교수(33, 수원대)의 책이 '철학자, 혹은 교수가 쓴 책'이라는 통념을 안고도 꽤 팔리는 책이 된 데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쉽고 잘 읽힌다는 것, 그 저변에는 세계를 분석하는 틀을 다양하게 선택할 줄 아는 사고의 자유로움이 깃들어 있다. 만화나 TV 드라마 속에서 가부장제와

후기산업사회의 폭력을 읽어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말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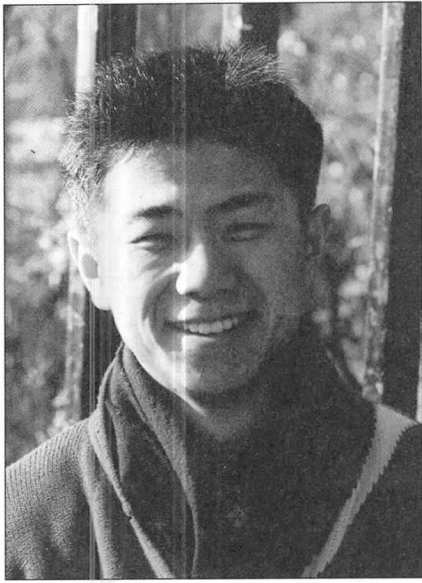
자신의 관심이 누구나의 관심이 될 수는 없지만 지배적인 문화현상이란 드러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교수는 서구의 모모한 철학자들의 원론보다 90년대에 나타난 일상적인 현상이 철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여긴다.

섹스가 운동이 되고 동성애가 중요한 담론으로 떠오르는 요즘의 문화현상은 성이 노동력의 창출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진 데 기인한다. 또 몸은 마음과 정신을 담은 그릇인데, 섹스 어필이나 '숫다리' 등의 조작된 콤플렉스가 상품 소비를 조장한다. 엄정한 논리 안에서

현상의 배면을 들여다보는 이교수의 섬세한 시선은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하는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저는 대안제시자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토대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다음은 개인의 몫이라는 것. 책이 알려지자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아 바빠졌다는 이교수는 교통방송 등 여러 개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수업준비와 함께 매주 한 시간씩 방송할 내용을 준비하는데 많은 힘이 들지만 덕분에 더 예민한 촉수를 가지게 되었다. 왕자·공주병, 대학에 꼭 가야 하나, 80년대의 조용필과 90년대 댄스가수들, 드라마 임궽정의 높은 시청률 등이 모두 이주향 교수가 요즘 염두에 두고 있는 분석거리다. — 이현주 기자



과분하고 행복했던 한 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펴낸 장승수씨

“책을 내고 의외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타인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많은 격려 편지와 저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생의 목표를 향해 강건하게 나갔으면 해요.”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법대 진학을 선택했다. 2학년부서는 전공수업이 시작되고 사법고시를 준비해야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여러가지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유학을 가고 싶기도 하다.

“넓은 세상에 나가보고, 공부도 여한없이 하고 싶어요.” 다행히 책이 많이 팔려서 재정적인 부분은 충당될 수 있을 것 같다. 학교생활이 그에게는 더없이 즐겁다. 강의를 들을 때도, 교정의 나무를 바라볼 때도 문득문득 대학에 들어오기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광란의 자본주의》와 소설 《영원한 제국》 《비밀의 문》 등을 재미있게 읽었다.

“올해는 여러가지로 행복했던 한해였습니다. 과분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에게 현재 바람이 있다면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는 것과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이 전부다.

— 마정미 기자

막노동꾼 출신으로 4수만에 서울대에 수석합격한 인간승리의 주인공 장승수(25세)씨. 그가 쓴 책의 첫장에는 “남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나도 할 수 있다”는 다짐이 적혀 있다. 싸움꾼이었던 고교시절을 졸업하고 가스·물수건 배달원, 포크레인 조수, 택시기사, 공사장 막노동꾼을 거쳐 고교 졸업 6년만에 서울대 수석을 차지한 그의 ‘일’과 ‘공부’ 이야기는 벌써 30만부가 팔려나갔다.

“처음에는 모든 출판의뢰를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책이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이에 주체님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결국 책을 내게 된 것은 김영사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경로로 의뢰를 해왔기 때문. 마음의 빔을 지고 있는 대구의 선생님과 서점아저씨가 그를 설득했다. 대필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권고를 마다하고 책을 직접 썼다. 기왕 책을 낸다면 진솔하게 쓰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학시절의 첫 여름방학을 꼬박 바쳤다.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불혹의 이야기꾼

《아버지》 펴낸 김정현씨

학생들로부터 ‘바로 내 이야기’라는 공감과 자성의 편지들이 그에게 쏟아지고 있다. 무명작가에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그는 요즘 불편하다.

“책이 알려지는 것은 반갑지만 저 개인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허명에 제가 길들여질까봐 걱정도 되구요.” 그는 본래 서민적이라 감자탕에 소주를 즐기는데, 일전에 택시를 탔다가 기사가 자신을 알아보는 바람에 술이 확 깨더라.

김정현씨는 매사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스타일. 덕분에 글을 빨리 쓴다. 첫 작품 《함정》은 석달만에 썼고 《아버지》는 두달 걸렸다. 작중인물 한정수가 생존한 두달을 그 인물과 더불어 고뇌하며 쓴 것.

고교 때 읽은 《법학개론》(서울대 출판부) 때문에 경찰관이 된 그는 일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13년간 미친 듯이 일했다. 가정에 소홀해 중국에는 아내와의 이별이 닥쳐왔다. 이제는 물 흐르듯 인생을 살고 싶고, 세상에 욕심도 없다. 여유가 생기면 인세수입도 주위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 한다. 《아버지》의 희곡작업을 통해 “스스로 정리 못한 아버지의 개념,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그는 인간의 영원한 화두인 죽음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다루고 싶어 한다.

— 마정미 기자

한때는 입지전적인 고시 합격자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소외된 공무원. 딸이 지망하는 학과 정원이 35명이라는 사실 때문에 35를 넘는 숫자는 모조리 피해 다닐 정도지만 애정 표현이 부족하다고 지탄받은 아버지, 암이라는 사형선고를 받고 가족을 걱정하는 50대 가장. 이런 중년의 초상을 그려 베스트셀러가 된 《아버지》(문이당)의 작가 김정현(39)씨는 작가라는 호칭을 고사한다.

“작가라는 말은 제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을 뿐. 이에 공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해서 디스켓을 들고 출판사를 전전했는데 모두 거절하더군요. 5번째로 찾아간 출판사가 제똥에 동의했기에 빛을 볼 수 있었죠.”

책이 나온 후 그는 세상이 그렇게 삭막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어느 중학생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친해 질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더라는 것. 30대부터 50대의 남성·주부·

정신은 어떻게 출현하는가?

조용현 지음/320면/10,000원

철학적 관점에서 도구, 의식, 언어의 진화를 통해 인간이라는 동물의 통시적·역사적·시간적 형성 과정을 살펴 본다. 20세기 이후의 해부학, 고고학, 생물학 중심의 진화설에 철학적 사고를 덧입힌 작업이 관심을 끈다.

인간: 철학적 인간학 입문

B. 문던 지음/허재운 옮김/336면/11,000원

인간 존재가 나타내는 다양한 현상들 즉 생명, 지식, 자유, 언어, 문화, 노동 등에 현상학적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인간 존재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선형 철학적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가치와 인격: 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 윤리학

이을상 지음/224면/7,500원/철학박사학위논문 12

칸트의 형식주의적 윤리학의 전제를 비판하면서 현상학적 방법을 윤리학에 적용시킨 셸러의 실질적 가치 윤리학을 “가치”와 “인격”이라는 두 지주(支柱)를 통해 고찰하고 있다. “실천의 학(學)”으로서의 윤리학을 만날 수 있다.

루소, 칸트, 괴테

E. 캣시러 지음/유철 옮김/160면/5,500원

18세기의 사상적 흐름을 근세의 중심적인 사상가들인 루소, 칸트, 괴테가 서로에게 미친 인격적·철학적·윤리적 영향성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들의 사상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철학과 정치와 문학의 연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